

농촌마을 공동시설 개선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조순재 * · 임승빈 ** · 오휘영 ***

* 농촌생활연구소 · **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 *** 한양대학교 환경과학대학원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mmon Facilities in the Rural Village

Cho, Soon-Jae * . Im, Seung-Bin ** . Oh, Whee-Young ***

*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l Univ.

***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cience, Hanyang Univ.

ABSTRACT

The main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improvement guidelines for the rural community facilities(short as RCFs) in the village level. 28 villages were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travelling distance to the nearest city, farming types and percentage of farm to total land. Through the analyses of the physical conditions and utilizing practices of RCFs in case villages, the tentative improvement guidelines were finally formulated.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Most villagers thought the village hall and 'Jungjamok' (Korean-style outdoor rest point) being centrally located, which was reflected in their high satisfaction with the accessibility to RCFs. However, they evaluated that above two places were too small and old for normal use, so set forth their views of high dissatisfaction on the scale of RCFs.
2. Analyses results of the survey in the study showed the ranking order of service level of RCFs as following: the village hall / rest building for the aged / rural-pocket park / village store / playground. And the need for cultural function was much more highly expressed than merely meeting function.
3. Considering together with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related referencing guidelines, it is proposed to introduce the village hall, shop, and village store as basic ones of RCFs in the village level, which should form a single complex connected mutually and functionally each other.

I. 서론

우리나라의 농촌마을(기초마을)의 수는 약 67,000 여 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농촌마을은 농촌생활환경개선의 최소 단위로서 마을이 갖는 기능의 활성화 및 생산기반시설

의 확충,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개발계획대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공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은 급격한 이농현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농촌마을은 과소화(過疎化)되었으며 주택, 상·하수도, 교육, 문화, 의료시설 등의 서비스 수준은 도시에

비해 상당히 열악해 진 반면, 도시화, 산업화로 농촌생활은 다양화되고 현대적인 문화 생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마을의 정주성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재정비 과정에서 바람직한 농촌마을의 공간구조, 공동시설의 유형과 규모 등이 고려되고, 주민들의 새로운 문화적 욕구가 반영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농촌마을 계획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촌마을의 공동시설 현황과 이용특성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농촌마을 공동시설의 유형과 배치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마을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농촌마을은 자연지리적 여건, 지역 및 생활적 특성, 농업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전국 5개 거점중심도시(서울, 춘천, 대전, 대구, 광주)를 기준으로 생활권역을 각각 설정한 다음, 중심도시와의 거리와 경지율에 따른 지대분류와 영농유형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농촌마을을 선정하였다.

생활권역은 서울권, 춘천권, 대전권, 대구권, 광주권으로 구분하였고, 중심도시와의 거리에 따라 도시근교지역과 원교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도시근교지역은 각 중심도시에서 반경(서울권은 시 경계) 16km 이내에 위치한 마을로 읍·면 소재지가 아닌 지역을 선정하였고, 중심도시에서 16~48km에 위치한 지역으로 소도시나 읍·면 소재지가 아닌 지역을 원교지역으로 하여, 원교지역에서 경지율에 따라 4개 지대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지율이 35% 이상(답율 56% 이상)인 지역을 평야지, 25~35%(답율 56% 정도) 지역을 중간지, 25% 미만(답율 56% 이하) 지역을 산간지로 구분하였다.¹⁾

영농유형은 마을 전체 소득의 50% 이상 차지하는 주소득원의 작목에 따라 미작농, 시설채소농, 축산농, 과수농 등 4개 영농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농촌마을의 유형분류 및 마을선정 지침에 따라 총 28개 농촌마을을 조사대상마을로 선정하였다. 구체적

으로 생활권역별로는 서울권 5개 마을, 춘천권 5개 마을, 대전권 6개 마을, 대구권 6개 마을, 광주권 6개 마을이며, 거리 및 지대별로는 도시근교 5개 마을, 평야지 9개 마을, 중간지 10개 마을, 산간지 4개 마을, 그리고 영농유형별로 분류하면 미작농 9개 마을, 시설채소농 7개 마을, 축산농 5개 마을, 과수농 7개 마을이다.

2.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조사대상 농촌마을(28개 마을)에 대한 현황조사 및 설문조사는 모두 2차에 걸쳐 수행되었다. 1차 조사는 1995년 2월 7일~3월 13일까지 실시하였고, 2차 조사는 1996년 2월 7일~2월 28일까지 실시하였다. 현장조사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농촌마을(28개 마을)의 입지와 위치, 인문환경, 주거환경 시설 현황, 마을생활권 등을 조사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마을회관, 노인정 등의 공동시설의 공간구성과 규모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1차 조사시에는 주거환경 및 마을공동시설의 문제점, 해당 마을내에서 정비가 요구되는 장소와 추가로 필요한 공동시설(공간) 등을 조사하였고, 2차 조사시에는 공동시설 이용실태, 공동시설 이용 만족도, 요구도와 관련하여 조사하였다.

1차 설문 조사에서는 마을당 이장(里長)과 20세 이상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이장(里長) 28명과 주민 556명을 설문조사하였고, 2차 설문조사에서는 마을당 1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총 280명의 주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대상 주민은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표 I-1)

〈표 I-1〉 농촌마을 조사내용

구 분	1차조사(1995. 2. 7~3. 13)	2차조사(1996. 2. 7~2. 28)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마을 입지와 위치 · 주거환경시설 현황 · 마을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시설의 이용횟수 · 마을공간내 공동시설 이용 만족도, 요구도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간구조 조사·분석 · 마을내 공동시설 배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시설의 공간구성 및 면적

3. 분석방법

1) 원교지역의 지역구분(평야지, 중간지, 산간지)은 주로 해발, 경지 면적, 답율 등에 의해 구분하고 있으며 그 기준치는 일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조사연구설계」의 지역구분 기준치를 참고하였다.

설문조사에 기초한 이용실태와 요구도 등에 대한 분석은 SPSS/PC+(Ver 5.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Tab analysis)을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마을 현황

조사대상 농촌마을(28개 마을)의 평균인구는 약 239명, 가구수는 평균 69호로서 가구당 가구원 수는 평균 3.5명으로 나타났다. 28개 마을 중 19개 마을의 규모가 50호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비농가의 비율은 서울권 마을이 33.8%(385호 중 30호)로 가장 높고, 대전권 마을이 7.4%(405호 중 30호)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을의 생활권은 53.6%에 해당하는 15개 마을이 면생활권에 속하며, 35.7%(10개 마을)가 읍생활권, 10.7%(3개 마을)는 중심마을생활권에 속한다.

2. 농촌마을 공동시설 현황

가. 농촌마을 공동시설 보유현황

농촌마을 공동시설인 마을회관은 군위군 우보면 봉산 2리를 제외한 27개 마을에 있었고, 규모는 15평에서 30평이 대부분이었다. 공동창고는 22개 마을(78.6%)에 설치되어 있으며 50평 이하의 규모를 보였다. 공동저장고가 설치된 농촌마을은 2개 마을(7.1%)에 불과하다.

생활편익시설 중 정자목공간은 15개 마을에, 노인회관은 21개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회관은 화순군 농주면 만수 2리, 인제군 관대리 등 5개 마을에서 독립된 건물로 설치되어 있고 그 외의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터는 5개 마을에 있고 그네 미끄럼틀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상태가 부실하다. <표 I-2>

<표 I-2> 농촌마을 공동시설 보유현황

권역	마을	지대	지대						농작업완료	
			마을회관 (평)	정자목공간 (평)	노인정 (평)	어린이 놀이터 (평)	쉼터 (소공원) (평)	체육 시설 (평)	공동 창고 (평)	공동 저장고 (평)
서울	행신 18	도시근교	60	-	4	-	-	-	-	-
	태 1	평야	30	-	30	-	-	-	30	-
	학운 3	평야	17	-	-	-	100	* (600)	-	-
	이곡 1	중간	30	12	11	-	-	-	34	-
	위곡 1	중간	80	10	8	-	-	-	7	-
춘천	율문 3	도시근교	25	-	5	-	-	-	50	-
	시동 1	평야	20	60	10	50	-	-	37	-
	서화 1	중간	30	-	28	-	-	-	30	50
	가아 2	중간	25	-	22	-	-	-	15	25
	관대	산간	25	8	25	-	-	-	-	-
대전	내부 2	도시근교	15	10	12	69	-	-	4	-
	덕평 3	평야	25	10	-	-	-	-	50	-
	화정 2	평야	21	10	21	-	-	-	30	-
	직곡 1	중간	20	10	6	-	-	-	10	-
	관산	중간	20	50	-	-	-	3	-	-
	적누	산간	30	-	30	-	-	14	50	-
대구	삼리 1	도시근교	13	-	-	-	-	-	50	-
	계전 1	평야	50	100	-	-	-	-	-	-
	인안 2	평야	20	5	-	-	-	-	5	-
	봉산 2	중간	-	-	-	-	-	-	-	-
	연계 2	중간	6	25	1.5	-	-	-	50	-
	가암 1	산간	20	-	10	-	-	-	40	-
광주	광이	도시근교	78	-	11	200	-	-	30	-
	덕산 3	평야	15	5	15	-	-	-	20	-
	복동 2	평야	8	-	15	-	-	-	15	-
	만수 2	중간	20	30	15	10	-	-	80	-
	백암 1	중간	15	-	34	18	-	-	30	-
	정봉	산간	7	30	7	-	-	-	20	-

나. 농촌마을 공동시설의 배치 유형

조사대상마을 공동시설의 배치유형은 3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A유형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생활편익시설과 농작업 공동시설이 마을중심공간에 집중 배치된 형태, B유형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생활편익시설이 있고 농업생산시설은 경작지 가까이에 둔 형태이며 C유형은 마을의 입지적 조건에 따라 임의로 배치한 형태이다. A유형에 속한 마을은 9개, B유형은 8개, C유형은 7개 마을이다. <그림 I-1>

유형	배 치 유 형	공 간 배 치 도
A유형	·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생활편익시설과 농업공동시설이 마을중심공간에 집중배치된 형태	
B유형	·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생활편익시설은 마을중심공간에, 농업관련시설은 경작지 가까이에 배치된 형태	
C유형	· 마을주변의 자연입지적 조건에 따라 임의로 배치된 형태	

<그림 I-1> 농촌마을 공동시설의 배치유형

3. 농촌마을 공동시설 이용실태

가.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응답자는 280명 중 남성은 62.1%이며, 연령은 40세 이상이 전체의 82.5%(60세 이상 31.1%)로 나타났다. 세대주의 직업은 전업농가가 77.8%, 겸업농가 13.4%였으며, 비농가는 5.8%로 나타났다. 전업농가의 영농유형은 미작농이 30.9%, 과수농 15.3%, 축산농 10.5%, 시설원예농 18.5%이며 농촌마을에 거주기간은 대부분 20년 이상(76.4%)으로 나타났다.

나. 농촌마을의 공동시설 이용실태

농촌마을의 기존 공동시설 중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마을공간적 측면이나 시설이용 측면에서 마을의 중심시설로 인지되는 시설은 마을회관(70%), 정자목공간(33.2%), 상점(23.6%), 마을공동창고(15%)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마을중심공동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정도는 시설의 이용측면보다는 시설의 위치와 그 시설물이 부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 마을회관

마을회관은 대부분 1970년대 새마을 지원사업으로 건축(42%)된 건물로 대부분 노후화되었고 규모가 협소한(25평 미만 46.1%) 시멘트블럭조 구조의 건물(76.9%)이다.

대부분의 마을회관은 노인정(온돌방)으로 개축하여 노인들을 위한 모임장소로 주로 이용되고 있고(16개 마을) 그 외는 주로 회의실과 농산물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마을회관의 공간이용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70년대는 단순한 마을회의실로 이용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 공동취사장, 노인정 등의 시설을 갖추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들어 오락/휴식시설, 난방설비 시설이 추가되어 마을주민의 복합 생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I-2>



<그림 I-2> 마을회관 공간이용 및 구성의 변화

2) 노인정(노인실)

노인정은 대부분 기존 마을회관을 부분적으로 개축한 것으로 규모가 협소하여 마을노인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사시설, 화장실 등 생활시설의 미비로 시설 이용이 매우 불편하고 거주환경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다. 반면, 최근에 별도로 신축된 노인정(5개 마을)은 노인들의 모임장소로 이용이 잘되고 있다. 노인정의 희망시설로는 취사, 체력단련, 오락/휴식시설 등의 생활문화적인 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대비하여 도시에 비해 취약한 농촌노인 전용 공동시설 및 공간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3) 마을공동쉼터

농촌공원을 “농촌의 자연경관을 보존 및 보완하기 위한 오픈 스페이스의 일부로서 농민의 레크리에이션이나 공동체 활동을 위해 조성된 공동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임, 1996). 그리고 농촌공동쉼터는 일종의 농촌공원으로 농촌주민을 위해서 농촌마을에 설치되는 공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농촌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도시와 같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생활공간을 가꾸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마을 공동쉼터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을공동쉼터 조성시 필요한 시설은 정자, 파고라, 벤치 등 휴식시설이 76.8%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운동시설(46.5%)과 어린이 놀이시설(43.8%) 순이었다. 선호하는 시설에 있어서 지대별, 영농유형,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농촌마을 공동시설 이용 만족도

각 공동시설 이용 만족도는 5단계의 리커트 척도(Likert Attitude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5점까지의 값(매우 불만(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을 표기하도록 하여 그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표 I-3>

<표 I-3> 농촌마을 공동시설 이용 만족도

시설명	만족도	
	규모 만족도	접근성(거리)만족도
마을회관	3.14	4.05
경노당	3.61	3.90
공동쉼터	3.53	4.13
어린이놀이터	3.11	3.95
생활체육시설	3.48	3.66
공동창고	3.18	3.92
공동저장고	3.50	3.79
공동건조장	3.15	4.08
농기계창고	2.94	3.30

가. 공동시설 규모에 대한 만족도

농촌마을 공동시설 규모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농기계 창고와 어린이놀이터 규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과수마을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준(2.97)이었고, 미작마을의 경우는 공동창고에 대한 만족수준이 특히 낮았다. 일반적으로 생활편익 및 사회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영농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농업관련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영농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39세 미만의 젊은 층과 60세 이상 노인층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불만이, 40~50대 영농주는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공동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대부분 마을 공동시설은 주거지내에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되어 있거나(28개 마을 중 17개 마을), 마을회관에 인접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마을 공동시설은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 자연부락권 지지 범역 분포의 적용범위(636-736m)²⁾내에 위치해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 농촌마을 단위의 공동시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요인에서 접근성(거리)의 문제는 농촌마을 단위의 경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으며 만족도 주영향 요인은 공동시설 내용과 그 규모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민의 만족도는 권역별, 지대별, 영농유형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만 성별, 연령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5. 농촌마을 공동시설에 대한 요구도

가. 마을 공동시설 종류에 대한 요구도

농촌의 정주 생활 기반조성 및 정주성 회복과 농촌마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과 농업 생산에 관련된 공동시설 22개 시설 중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중요한 공동시설을 5가지에 한해 답변토록 하였고, 영농유형, 연령(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마을규모(50호, 100호, 150호), 지대(도

2) 최명규(1992)는 농촌생활권역을 자연부락권, 중심부락권, 읍면생활권, 군생활권으로 분류하고 농촌생활권별 支持範域 분포의 적용범위를 자연부락권은 평균 636-736m, 중심부락권 2004-2228m, 읍면생활권 3730-4198m, 군생활권은 12,578-13,750m로 산정하고 있다.

시근교, 평야, 중간지, 산간지)에 따라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농촌마을 기본 공동시설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결과 연령에 따라 집단간 응답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영농유형과 지대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복지시설과 공동생산시설에 대한 기본시설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편익시설에 대한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마을규모가 증가할수록 복지시설에 대한 응답율은 다소 낮아지고 놀이휴게시설에 대한 응답율은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린이놀이터와 마을공동쉼터를 기본시설로 응답율이 50호 규모의 마을에서는 4.8%와 7.2%로 나타난 반면 150호 규모의 마을에서는 11.7%와 10.6%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었다. <표 I-4>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은 지대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농업생산과 관련한 공동시설의 경우는 응답농가의 영농

유형에 따라 시설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농업생산관련시설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시설은 농산물과 농기계 공동창고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동시설은 단순한 집회 목적의 시설보다는 마을공동쉼터, 어린이놀이터, 생활체육 시설 등에 대한 문화적 생활 공동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농촌 생활의 다양화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향상 및 문화적 생활욕구증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마을 공동시설 접근성에 대한 요구도

농촌지역내 공동시설의 입지선호를 분석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기준으로 하여 인접하여 위치되기를 원하는 시설과 원하지 않는 시설, 경작지에 인접하여 위치하기를 원하는 시설을 <보기>를 참고하여 각각 3개씩 선택하도록 하였

<표 1> 종·고등학교의 교과목에 들어가 있는 환경 관련 교과 내용

구 분	연령 구분				마을 규모			
	청년층	장년층	노인층	평균	50호	100호	150호	평균
복지시설	마을회관	13.1	15.3	16.8	15.4	16.1	14.3	20.2
	노인회관	9.0	10.5	15.1	11.7	13.1	9.6	7.4
	공동목욕탕	6.5	6.4	6.3	6.4	6.1	7.4	5.3
놀이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7.3	6.4	7.1	6.8	4.8	9.1	11.7
	마을공동마당	2.0	2.6	1.0	2.0	2.2	1.9	1.1
	마을공동쉼터	6.5	9.0	6.8	7.9	7.2	7.7	10.6
	정자목공간	1.6	2.5	3.4	2.6	3.4	1.9	1.1
	생활체육시설	7.3	6.4	7.1	6.8	4.2	5.5	6.4
편익시설	상점	6.9	4.6	4.6	5.0	5.2	4.9	6.4
공동생산시설	마을공동작업장	0.8	1.7	1.2	1.4	1.5	1.7	-
	마을공동창고	4.9	1.7	8.8	7.5	9.1	4.9	8.5
	공동저장고	3.7	3.5	1.7	3.0	3.7	2.6	1.1
	공동건조장	2.4	2.9	1.7	2.4	2.7	2.8	-
	공동출하장	4.1	2.7	1.5	2.6	2.3	3.0	3.2
	공동축사	1.2	0.1	-	0.3	0.3	0.2	0.2
생산관련시설	정미소	2.0	0.6	0.5	0.8	0.8	0.9	1.1
	농어촌공장	0.8	1.6	1.2	1.3	1.4	1.7	-
기반시설	오수정화시설	2.9	2.6	2.4	2.6	1.8	3.6	2.8
	버스정류장	5.3	5.5	7.3	6.0	6.7	5.3	6.1
기타시설	텃밭	0.4	0.3	0.5	0.4	0.5	0.2	-
	마을숲	1.6	0.6	-	0.6	0.4	0.4	-
기타		5.3	6.8	7.6	6.8	4.2	9.1	4.6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N=245)	(N=692)	(N=410)	(N=1347)	(N=733)	(N=470)	(N=94)	(N=1297)
Chi-square = 72.3(p<0.01), d.f. = 44				Chi-square = 62.8(p<0.05), d.f. = 44				

註 : 마을규모에서 50호는 25-75호를 100호는 76-125호를, 150호는 126-175호의 규모를 지닌 마을을 의미함. 관대리(16호)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다. <보기>에는 생활관련시설 및 생산관련시설, 마을기반시설 등 총 22개 시설을 제시하였다.

주거지에 인접하기를 원하는 시설은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되어지는 시설들로 마을회관(16%), 노인회관(13.9%), 상점(11.0%), 생활체육시설(9.6%), 어린이놀이터(8.7%), 마을공동쉼터(7.8%), 버스정류장(7.7%), 공동목욕탕(7.6%)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주거지에서 멀리 두기를 원하는 시설은 환경악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들로 공동축사(28.2%), 오수정화시설(25.2%), 농어촌공장(19.2%) 등이며, 경작지에 인접하기를 원하는 시설은 마을공동창고(21.7%), 마을공동저장고(18.3%), 공동출하장(15.3%), 공동저장고(14.8%) 순으로 나타났다.

6. 농촌마을 공동시설의 개선방향

가. 마을규모를 고려한 농촌마을 공동시설의 배치기준

마을의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주민요구도 조사에 기초하여 공동시설을 필수시설, 가능시설, 검토시설로 구분하여 시설계획기준을 작성하였다. 즉 설문응답자의 총응답의 1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설은 필수시설로 보았으며, 5%이상의 응답율을 보인 시설은 설치가능시설, 2.5%이상 응답율을 보인 시설은 검토시설로 구분하였다. <표 I-5>

<표 I-5> 주민인식에 기초한 농촌마을 공동시설의 계획기준

구 분	필수시설 (응답율 10%이상)	가능시설 (응답율 5%이상)	검토시설 (응답율 2.5%이상)
생활관련시설	마을회관 노인회관	상점 공동목욕탕 어린이놀이터 마을공동쉼터 생활체육시설	정자목공간
생산관련시설	-	마을공동창고	공동저장고 공동출하장
마을기반시설	-	버스정류장	오수정화시설

농촌마을 공동시설의 배치기준은 문현분석과 기존 농촌마을에서의 공동시설 복합유형과 상호관련성, 주민의 공동시설 입지선호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50호 마을의 경우 마을회관, 공동쉼터, 공동창고, 오수정화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생활체육시설,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 가능한 시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

동시설들은 마을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배치하며, 토지이용 및 공동시설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시설의 복합화 및 기능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표 I-6>

<표 I-6> 농촌마을 규모에 따른 공동시설의 배치

구 分	기 초 마 을			중심마을(마을군)
	20호 규모	50호 규모	100호 규모	
유통시설	잡화점	○	○	○
	근린생활시설	×	△	○
교육시설	탁아소	△	△	△
	유아(치)원	△	△	△
의료시설	약방	×	×	△
	마을진료소	×	×	△
복지시설	마을회관	○	●	●
	노인정	△	○	●
놀이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	○	○
	공동쉼터	●	●	●
농업관련시설	생활체육시설	△	○	○
	공동작업장	○	○	●
생산시설	공동보관창고	△	●	●
	관광농원	△	△	△
	공동축사	△	○	○
오 수 경 화 시 설	●	●	●	

註 : ● : 필수도입 ○ : 도입가능 △ : 도입고려 × : 도입불가능

나. 공동시설 종류별 배치

1) 마을회관

마을회관은 농촌마을 중심 공동시설로서 농촌생활의 다양화와 주민의 문화적 생활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시켜 마을주민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내부공간설계는 모임공간, 노인정, 휴식, 축사시설 등을 갖추어 복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며 접근성을 고려하여 마을의 중심부에 배치하도록 한다.

- 마을회관 내부공간 : 모임, 노인정, 오락/휴식, 축사시설, 위생설비
- 마을회관 외부공간 : 옥외화장실, 마을마당, 과골라, 벤치 등 고려

2) 마을공동쉼터

마을쉼터의 위치는 마을회관주변, 정자목공간, 마을진입

공간 중 마을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시설내 용은 마을주민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선 정하도록 한다.

- 휴게시설 : 장년/노년층 중심
- 운동시설 : 청소년/장년층 중심
- 놀이시설 : 유아/유년층 중심
- 복합형 : 놀이/운동/휴게시설
(가장 선호하는 형태임)

3) 농업생산 관련시설

농업생산 관련시설은 마을의 영농규모와 영농유형을 충 분히 고려하여 요구도가 높은 시설을 확보하며 경작지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농업관련 공동시설은 건축비 절감을 위하여 조립식 건물을 권장함이 바람직하다.

- 시설내용
 - 기본시설 : 마을공동창고 (농산물보관)
 - 가능시설(영농유형별) : 농기계창고, 농산물저장고, 농산물집하장, 농산물건조장

IV. 결론

농촌지역에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주 거환경 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은 저밀도의 분산된 취락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주 거 생활이나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마을 단위로 공동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농촌마을의 재편 /재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마을 공동시설의 계획은 마을의 정주성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 주거공간 계획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촌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제공하고 또한 합리적인 배치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정한 시설기준 설정을 위해 농촌마을 공동시설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우리나라 농촌주거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마을계획을 위한 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농촌지역사회, 문화적 가치와 행태를 고려한 농촌마을 공동시설의 배치기준 및 구체적인 개선내용 작성을 위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参考文献

1. 농촌진흥청, 1995, 농촌주택과 마을의 주거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pp.19-54.
2. 농림수산부, 1995, 농촌마을공동쉼터 표준설계 및 지침서 개발에 관한 연구, pp.109.
3. 김정연, 1995, 농촌취락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농촌계획학회지 Vol.1 No.1, pp.89.
4. 임승빈 외, 1995, 문화(집단)마을과 기존 농촌마을의 비교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Vol.1 No.1, pp.49-64.
5. 임승빈 외, 1995, 취락구조개선마을(신촌형)의 주민의식 및 공간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Vol.1 No.2, pp.53-66.
6. 장택주, 1993, 농촌지역의 생활권에 대응한 시설배치 계획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최명규, 1992, 농촌지역시설의 적정규모 및 배치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青木之郎, 1984, 農村計劃論, 農山漁村文化協會.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 변화와 발전 1985~2001, pp.47-58
10. 青木之郎, 1984, 農村計劃論, 農山漁村文化協會.
11. 日本建築學會 編, 1989, 建築設計資料集成, Vol.9(地域).